

파초포의 내추럴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파초는 예로부터 친숙한 식물이다. 큰 타원형의 잎을 가지는 다년초로서 여름이 되면 황백색의 꽃이 핀다. 이러한 파초의 줄기에서 섬유소를 추출하여 면과 섞어서 실을 만들어 제직한 것이 파초포이다. 파초포에는 담색의 무지, 진한 다색의 색상을 갖는데, 고급품의 마와 유사한 태를 갖는 파초포는 투습성, 통기성도 좋아 취미로 할 수 있는 전통 공예소재이다. 단지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품이기 때문에 제조에는 많은 수고가 든다. 그 때문에 고급천으로 다루어지고 대중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연지향이 높아지고 있어 파초포의 우수함이 주목되어 수공예품이 아닌 공업생산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몇 번이고 개선을 거듭한 결과 대량생산을 할 수 있어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는 적당한 파초포 제품이 탄생하였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파초포의 내추럴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한편, 허브염색도 이슈화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자연, 건강지향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허브염색은 꽃, 풀 등의 허브라든가 나무껍질, 종자 등의 향신료로부터 다양한 천연 엑기스를 추출하여 그것을 화학염료와 배합하여 천을 염색하는 것이다. 천연 엑기스를 배합하여 염색된 원단은 화학염료만을 사용하여 염색한 것과 비교하면 보다 자연스러운 색조합을 볼 수 있다. 특히 허브 엑기스와 화학염료를 조합한 이점은 색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색상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이다. 또 천 전체에 부드러움이 있고 내추럴한 감이 전해진다. 허브염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실크, 울, 마, 코튼 등의 천연섬유가 주체이다. 블라우스, 니트, 재킷, 양말, 나이트 가운 등에 주로 사용된다.